

文대통령 “與, 협치 촉매 역할 해달라... 당정 관계 환상적”

“엄중한 상황 속에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
 “이낙연 연설 野 호응...협치 복원 계기되길”
 “돌봄휴가연장법 통과, 정책 협치 좋은 모델”
 “협치 주역 여당이 돼 주길...정부도 노력 최선”
 “文정부가 민주당 정부라는 마음으로 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신임 지도부에게 “국가적으로 아주 위중하고 민생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도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요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여야 간의 협치, 나아가서는 여야정 간의 합의 또는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 등이 지금처럼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시기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엇그제 이 대표님께서 국회 대표 연설에서 ‘우분투’라는 키워드로 진정성 있게 협치를 호소하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우분투(ubuntu)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로 공동체 정신을 일컫는다. ‘내가 있으니 내가 있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분투 정신을 화두로 던지며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했다.

또 “야당에서도 호응하는 논평이 나왔는데, 야당의 호응 논평이 일시적인 논평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 여야 간에 협치가 복원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뻐다”며 “국민들의 어려움에 국회가 시급하게 한마음을

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특히 대표님의 제안한 정책 협치의 좋은 모델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이것을 계기로 해 정부와 국회, 여야, 여야정 간 협치가 더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며 “그 주역이 여당이 돼주길 바란다. 촉매 역할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도 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당정 관계에 대해서 “거의 환상적이라고 할 만큼 좋은 관계”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어려움을 겪으

면서 국난극복 대책을 함께 해왔다”며 “내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될 4차 추경안, 긴급재난지원 방안 마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을 선도국가로 발전 시켜 나가기 위한 한국판뉴딜의 정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주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난 극복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바로 민주당 정부다’라고 하는, 당정이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임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더 희망이 되고 국난 극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

다”고 기대했다.

새 지도부에 대한 상견례 성격이자,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격려 의미를 담아 이번 간담회가 성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낙연 대표·김태년 원내대표·박광온 사무총장·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또 오찬 대신 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 당이 보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 뜻을 잘 받들면서 국난 극복에 앞장서는 당이 될 것이라 믿는 마음으로 임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당원 동지들의 기대도 클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아주 큰 기대

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같으면 총선을 마치면 당 지도부, 원내대표부 등 두루 청와대로 초청해서 함께 소통하고 단합하는 기회를 가져왔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당 최고위원, 원내대표단, 상임위원장, 의원님들을 청와대로 모셔서 소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다”며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초선 의원님들에게 미안한 심정 잘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국민의힘, ‘윤영찬 방지법’ 발의... “카카오에도 부정청탁 금지”

박대출 “부정청탁법 적용 대상에 포털 대표 등도 포함”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회의실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자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대표와 임직원도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일명 ‘윤영찬 방지법’을 발의했다.

전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음 카카오의 뉴스 편집에 반발하는 내용의 메

시지를 보좌진과 주고받은 것이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를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이다. 이에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포털사이트 대표와 임직원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포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클수록 불구하고 포털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특히 최근 포털사이트의 메인뉴스 편집에 대해 여당 의원의 외압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포털을 법 적용에 포함시켜 언론사와의 형평성 및 포털 뉴스 편집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이낙연 “윤영찬에 엄중 주의... “몇몇 의원 언동, 국민께 걱정”

“몇몇 의원이 국민들께 걱정 드리는 언동...조심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자당 소속 윤영찬 의원이 포털사이트 메인 뉴스 편집에 불만을 갖고 보좌진에 항의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엄중하게 주의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우리 당 소속 의원이 국회 회의 중 한 포털 매체에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게 포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그 의원께 알아보니 우리 당 대표 연설과 야당 대표 연설을 불공정하게 다뤘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의원뿐 아니라 몇몇

의원께서 국민들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의원님들 모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의원들이 국민께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새삼 조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께서 이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며 원내대표실 차원의 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윤 의원은 전날(8일)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포털사이트 카카오 메인에 오른 것을 두고 보좌진에게 문제를 제기한 뒤 “카카오에 바로 항의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표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데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처로 이룬 K-방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독립성, 전문성이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기능이 몹시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된 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해달라”며 “우리 동네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지역 보건소와 협업해 한시적 역할조사관제도 내실화 방안, 감염예방 프로그램 확대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번 추석 기간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일시 상향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로 몹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농축수산인과 전통시장을 동시에 돕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며 “많은 국민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